

연구와 전시

다시, 박물관을 꿈꾸다

스쳐 가는 가을, 단단하게 머문 풍경-국립박물관 야외 정원

2천 년 전 흉노의 발자취를 발견하다

오직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의 진심

사람과 이야기

문화유산을 지키는 젊은 수호자들

박물관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한다고?

사유에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

K-뮤지엄

한국문학을 사랑한 영국인 주교 리처드 러트 Richard Rutt





06
전국 국립박물관 야외 정원

연구와 전시

- 02 **인터뷰**
다시, 박물관을 꿈꾸다
- 06 **전시**
스쳐 가는 가을, 단단하게 머문 풍경
-국립박물관 야외 정원
- 10 **학술**
2천 년 전 흉노의 발자취를 발견하다
- 12 **교육**
오직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의 진심

사람과 이야기

- 14 **박물관 여행**
시간이 머문 자리, 국립광주박물관
- 18 **인터뷰**
문화유산을 지키는 젊은 수호자들
- 22 **잠시 멈춤**
기억의 서가 속으로
- 24 **박물관 산책**
박물관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한다고?
- 28 **K-뮤지엄**
한국문학을 사랑한 영국인 주교 리처드 러트 Richard Rutt
- 30 **박물관 수첩**
사유에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
- 32 **주요 소식**
- 34 **국립박물관 주요 전시 일정**
- 36 **박물관문화향연**
가을의 끝자락,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기억을 만들고 싶다면
- 37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24
'국중박 정모'의 면면들



18
신규 임용 학예연구사 인터뷰



28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 한국실 특별전





다시, 박물관을 꿈꾸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의 100일,
융합과 혁신을 향한 여정**

199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사로 시작해 2012년 국립춘천박물관장을 마지막으로 박물관 현장을 떠났다. 역사학자로서 대학 교수직을 거쳐 12년 만에 다시 박물관으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새롭게 출발한 김재홍 관장. 그의 취임 100일은 지난 여정을 통합하고 미래를 향한 융합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그의 구상과 계획을 들었다.

Q 취임사에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박물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듯합니다. 감회가 남다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A 다시 돌아오기 전에는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깊었기 때문인데요. 박물관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박물관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어떻게 새로운 혁신을 이룰 것인지, 하는 고민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함께 했던 선후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성장해 온 관우^{관우}들이었으니까요. 그분들께 누가 되지 않는 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층 무겁기도 합니다.

교수직에 있으면서도 국립박물관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선 늘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 더욱 실감하게 된 점도 많습니다. 과거 박물관은 연구 중심의 전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그 연구 영역이 더 세분화·전문화되면서 전시의 다양성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보다 관람객이 중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연이 확장되고,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Q 연구와 전시 현장을 두루 경험하신 관장님께서 구상하는 박물관 전시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2009년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한 국립중앙박물관 고조선실 개관에 큰 역할을 담당하셨다고요.

A 국가를 주제로 하는 최초의 전시라 부담이 컸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 박물관의 전시는 주로 국보급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물질 중심의 시각적 전시가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관우들은 고조선실이 문화와 역사,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물 중심의 전시가 많지만, 앞으로는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유물의 관계성을 연결 짓는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26일부터 개최하는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 특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형청자의 아름다움 너머에 고려시대 사람들이 가졌던 문제의식에서 삶의 지향점까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Q 2011년 국립나주박물관의 건립 TF 팀장으로서 지역의 현장성을 강조한 참여형 전시를 구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 국립나주박물관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서울에서 나주까지 왜 가야 하는가?'였습니다. 답은 바로, 그곳이 아니면 볼 수 없는 현장성이었어요. 그렇다면 국립나주박물관의 현장성은 무엇일까? 우리는 반남고분군(사적 제513호)이라는 장소성과 영산강 유역의 문화, 주요 소장품인 옹관을 중심으로 한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옹관의 물리적 특성상 전시에 한계가 있어 개방형 수장고를 도입했어요. 관람객이 유물의 규모를 직접 보고 발굴부터 복원 과정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국내 최초였죠. 그 시도가 경주와 공주로 이어져 국립박물관의 새로운 전시 방법론으로 확대·발전했습니다. 돌이켜 보니, '개방'이야말로 박물관의 현장성을 살리고 관람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네요.

Q 국립춘천박물관장 재임 시절, 춘천에서 찾은 현장성은 무엇이었는지요?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소속관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신념이 있다면 들려주십시오.

A 국립나주박물관의 경우 자연과 유적 속에서 콘텐츠를 보여줬다면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자연을 박물관으로 끌어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대표 자연을 오늘의 문화로 재해석한 특별전 <관동팔경 제1경, 경포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양양 낙산사(2013), 삼척 죽서루(2015), 고성 청간정(2019)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6년 개관 예정인 국립충주박물관을 포함하면 전국에는 14개의 소속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 역할은 저마다 자리 잡은 지역의 특별함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그 위에 시대적 변화와 맥락을 반영한 새로운 시각과 이야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역마다의 특별함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서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소속박물관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Q **박물관과 지역 사회의 긴밀한 협력 또 한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A 올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국보순회전: 모두의 걸으로> 전시를 내년에도 이어갑시다만, 이제는 ‘문화향유권 증대 또는 확대’가 아닌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누려 마땅한 문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때문에 지역의 특성과 맞아떨어지는 전시 기획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보편적인 문화유산을 지역적 특수성과 연결해 상호 조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이죠. 이런 의미에서 올해 <국보순회전> 전시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람객이 호응해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 전시도 이 같은 느낌의 연장과 확장선상에서 지역 사회와 협력하겠습니다.

Q **말씀하신 특별한 전시를 뒷받침하고 이끄는 것이 연구인데요. 연구자이자 관장으로, 국립박물관의 연구와 조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박물관 연구의 시작은 유물과 자료의 ‘원형’을 파악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접하게 되는 콘텐츠는 후대의 생각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유물의 원형, 즉 당대의 사용 방식, 기술적 요소, 사상적 의미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연구를 밑받침 삼아 박물관의 각 분야는 유물의 원초성을 토대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박물관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 연구자들이 특정 전공을 넘어서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는 공동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전공 분야가 연구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문화유산의 여러 측면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자료를 둘러싼 세분화된 시각과 연구 방법론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발견하고 연결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래사회를 향한 융합의 방법일 테고, 박물관은 융합의 시대를 이미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에 대해선 어떤 접근방식을 갖고 계신지요?**

A ‘모두가 즐거운 박물관’으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관람 가능한 전시관을 기본 과제로 삼

고 있지만, 최근에는 연령별로 즐길 거리나 콘텐츠를 달리하는 박물관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관람객에게 박물관의 전시와 정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에서 접근해야 하죠. 따라서 어린이 관람객에게는 예비 교육적 차원의 전시로 안목과 친근함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로 묶인 연령대 안에서도 영유아들이 뛰노는 특수공간을 마련한 국립추천박물관의 사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들어 박물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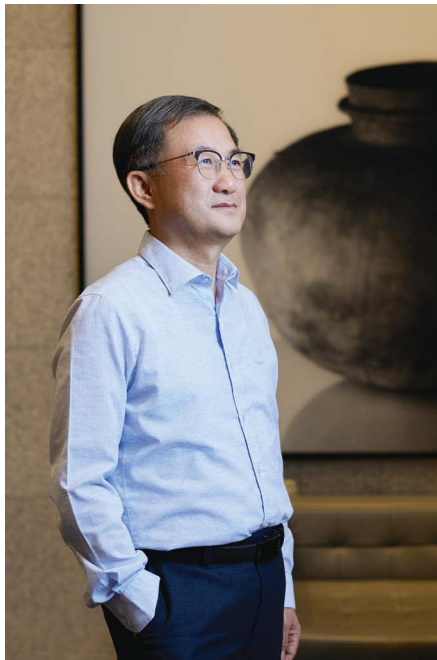
A 박물관은 모든 이들에게 ‘기억을 만드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박물관은 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21세기 문화 공간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박물관의 공간과 역할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전시된 유물을 보며 이야기를 떠올리고, 그 기억을 재생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죠. 전시 관람 후 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즐기며 사유할 수 있는 공간, 못즈나 도록을 구입하는 등 박물관의 기억을 손에 담아 가져갈 수 있는 부대시설처럼요. 이처럼 박물관의 콘텐츠와 동선은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배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박물관에서의 기억을 미래로 이어줄 테니까요.

또한 박물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누구에게도 차별 없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간 진행해 온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와 시설 마련을 내실 있게 이어나가겠습니다. 전시실 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감각지도와 촉각 체험물, 점자 안내판의 정확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한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고령층 등을 위한 편의성을 강화하여 모두가 박물관에서의 기억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2005년 용산으로 옮겨온 이래 국제교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A 그간 국제교류는 교환 전시를 중심으로 교류의 영역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텐츠와 함께 인적 교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전시 기획과 연구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지요. 따라서 앞

“박물관의 각 분야는 유물의 원초성을 토대로 다각적이고 새로운 해석을 더해야 합니다.”



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은 ‘국제적인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전문성을 다양한 분야와 연결할 수 있으면서 국제적 감각으로 외국 박물관과 관계망을 확산시켜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외국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물론,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를 그들의 필요에 맞게 전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인재들이 국제사회와 연결되고 외국 박물관과 협력하게 될 때 큰 시너지synergy가 발생할 것이라 믿습니다.

Q **한국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열기 속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인 관람객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역대 최고인 15만 명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들에겐 어떤 특화된 서비스가 필요할까요?**

A 스마트 AI 언어 체계로 박물관의 문화유산과 우리 역사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기본일 테고, 더욱 세심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배려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외국인 관람객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유산을 국내외에 소개함과 동시에 외국 문화유산을 우리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것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의 책무라고 생

각합니다.

일례로 11월,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와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두 개의 전시가 거의 동시에 개최됩니다. 국내외 문화유산을 우리와 외국인 관람객 모두에게 소개하여 서로의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시의 다양성은 관람객의 다변화와 함께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 안에도 외래문화에서 성장한 사람들과 다문화 가정이 상당하지요. 좀 더 넓게 보면, 아직 익숙하지 않거나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문화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다양성을 박물관에 어떻게 적용할지 폭 넓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Q **국립중앙박물관은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으로서 세계 유수의 박물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 비전을 들려주십시오.**

A 세계화는 우리 문화의 국제화와 외국 문화의 현지화를 모두 아우른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국립박물관이 성실히 축적해 온 조사와 연구, 전시 역량을 꾸준히 이어

가고 세계 박물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국내외 유물과 전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일 또한 박물관의 미래를 위한 일이 되겠지요.

더불어 미래의 박물관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화입니다. 유물과 콘텐츠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방식도 계속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이미 관람객이 박물관을 향유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죠. 박물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디지털 공간에서 관람객이 유물을 검색하고 저장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여 공유하는 방식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 개개인의 감각을 깨우고 영감을 주는 일은 환영할 만하며, 이러한 경험의 변화가 유물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과정으로 이어질 바랍니다. 이 즐거움의 원천을 더 많이,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이 그 중심에 단단히 자리하겠습니다.

정리. 편집팀

스쳐 가는 가을, 단단하게 머문 풍경

석조여래입상
고려
높이 280cm
선수 12080



옷을 갈아입은 풍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산책길 속으로 빠져들기 좋은 계절이 왔다. 아무 고민과 걱정 없이 그저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시간. 이 순간을 수백 수천 번 지나왔을 석조문화유산과 함께, 가을의 정취가 짙게 물든 국립박물관 야외 정원을 거닐어 본다.

어느새 들어서다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석조물 정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가을에 꼭 가봐야 할 야외 공간이 있다. 바로 박물관 앞 너른 공간 동쪽에 자리한 석조물 정원이다. 통일신라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는 석조물 30여 건이 숲과 함께 어우러져 관람객과 인근 주민의 산책로가 되어주는 곳이다.

석조물 정원은 2005년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의 용산 이전과 함께 조성됐다. 박물관 학예연구사들은 2004년 가을부터 1년에 걸쳐 석조물을 옮겼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작품 선정부터 배치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전시 설계 과정이었다. 산책이 곧 관람이 되는 경험을 관람객에게 선사하고자 하는 마음 이었고, 이는 모든 국립박물관의 야외 공간에 흐르는 정신이기도 하다.

석조물 정원 입구에는 진입을 알리는 경계석이나 안내판이 없다. 그 때문에 관람객들은 거울못(국립중앙박물관 광장 한가운데 자

리한 연못)을 지나 자연스레 석조물 정원으로 들어서게 된다. 정해진 관람 순서라든가 꼭 봐야 할 문화유산 목록도 제시하지 않아 발길이 닿는 대로 보물 찾기 하듯 석조물을 발견하게 된다. 마음 내키는 대로 진입로와 코스를 선택할 수 있기에 갈 때마다 다른 모습을 만나는 것도 이곳의 매력이다.

거울못 주변부터 돌아보고자 결정했다면 키가 큰 탑들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다. 그중 <남계원 칠층석탑>은 고려 때 제작된 탑 특유의 미감이 돋보여 감상하는 재미가 있다.

정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18세기 후기 사대부의 무덤에 놓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문인 석(文人石) 2점을 만날 수 있다. 안정적인 비례와 치밀한 조각 수법은 물론 은은하게 띤 미소에 탄성이 터진다. 이 밖에도 조선시대 석물과 옛 보신각 동종, 통일신라에서 고려에 이르는 승탑과 탑비의 장중한 위용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7

(좌)충주 정도사 터
홍법국사탑비
신라
높이 375cm
보물
본관 1960

(우)충주 정도사 터
홍법국사탑
고려
높이 255cm
국보
본관 1961



담담하게 내딛다

국립대구박물관 옥외정원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대구·경북의 국보와 보물-2000년 전의 대구 비산동과 1500년 전의 고려 지산동> 특별전을 열고 있다. 수천 년 전 대구에서의 삶을 엿보게 하는 전시인데, 전시장 바깥에도 그 같은 공간이 있다. 토기 가마부터 탑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옥외정원이다.

국립대구박물관 옥외정원에서는 문인석, 태실 석함, 대구읍성 성벽돌 등 다양한 석조물은 물론 대구 지역에서 발굴된 돌방무덤, 고인돌도 관람할 수 있다.

옥외정원에서 가장 돋보이는 석조물은 칠

곡 <정토사지 오층석탑>(보물)이다. 이 탑은 고려 현종 22년(1031)에 칠곡 정토사 터에 세워진 후 1994년 국립대구박물관 개관과 함께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탑 안쪽에서 출토된 문서인 형지기^{形止記}에 의하면 고려 초기 칠곡 지역 향리와 백성들이 발원해 탑을 건립했다고 한다. 건립 목적과 시기가 명확한 만큼 고려 초기 석탑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가치가 큰 석조물이다.

삼국시대 토기 조각과 토제품 등이 출토된 경산 옥산동 토기 가마,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된 청동기와 삼국시대 무덤인 달성 설화리 돌방무덤, 도시철도 공사 중 발굴한 고인돌 등 대구 지역 삶의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이 즐비하니, 천천한 발걸음으로 담담히 만나보길 권한다.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수성구
청호로 321

정토사지
오층석탑
고려
보물
본관 12807

평온하게 지키다

국립공주박물관 수호의 정원

지난 9월 공개된 수호의 정원은 석가모니불상, 장명등^{長明燈}, 석수^{石獸} 등 석조문화유산 32점을 갖춘 공간이다. 정원의 이름처럼 ‘수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문화유산 17점도 포함되어 있다.

수호의 정원은 ‘깨달음의 쉼터’, ‘장명원^{長明園}’, ‘석수의 숲’, ‘별서정원’으로 구분돼 걷는 이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먼저 ‘깨달음의 쉼터’에서는 독특한 구조물에 놓인 머리 없는 석가모니불상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뒤로 약사불, 비로자나불, 부처상이 마치 석가모니불

을 호위하듯 늘어서 있어 신비함과 안정감이 동시에 느껴진다.

‘장명원’에는 죽은 이의 가는 길을 비추어 주던 장명등 9점이 자리한다. 영혼을 밝게 인도했듯 관람객의 앞날을 비추고 지켜주길 바란다는 뜻에서다. 각기 다른 모습을 갖춘 장명등을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이다. 동물상 12점이 자리한 ‘석수의 숲’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해태, 원숭이, 개, 호랑이 등 다양한 형상을 한 석수들이 나쁜 기운을 쫓고 좋은 기운을 복돋아 준다. 조선의 전통 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별서정원’에서 일광욕 의자에 누워 박물관 전경을 한눈에 담아 보는 것도 산책의 즐거움 중 하나이다.

국립공주박물관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 34

장명등
조선
전회 4798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제주시
일주동로 17

동자석
조선
길이 172cm
높이 162cm

돌과 함께하다

국립제주박물관 옥외전시장

화산섬 제주에는 어딜 가나 돌이 많다. 그중에서도 구멍이 숭숭 뚫린 현무암, 부드러운 조면암이 특히 많은데, 제주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돌로 만들었다.

국립제주박물관 옥외전시장에는 옛 제주 사람들이 만들어 썼던 정낭, 맷돌, 연자매와 무덤 앞에 세워두던 동자석 등 돌로 만든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다.

수 유인원의 행적을 기록한 공적비이지만, 비문 중에 의자왕, 태자, 신하 수백 명이 당나라로 압송된 이야기와 백제 부흥 운동의 중요 내용 등이 기록돼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밖에도 <승탑>, <박물관석조여래입상>, <동사리석탑> 등 여러 석조물이 품은 아름다운 박물관 정원 곳곳에서 마주할 수 있다.

백제 왕궁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부여석조>(보물)는 국립부여박물관의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로, 본래 물을 담아 건물 곁에 둬으로써 화재 등의 재앙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는 벽사^{辟邪}의 의미를 담고 있다. 형태미가 돋보이는 수작^{秀作}으로 상설전시관 내 중정에서 디지털실감영상콘텐츠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국립부여박물관
충남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부여석조
백제
보물
부여 367

박물관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정낭을 마주한다. 정낭은 옛날 제주 민가의 대문 역할을 했던 석조물로 걸터둔 나무 막대기의 개수에 따라 집주인의 소재를 파악했다고 한다.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쓰이는 연자매, 곡식을 갈 때 쓰는 맷돌 등 돌로 만든 생활용품도 주변에 전시되어 있어 옛 제주의 삶과 문화를 한눈에 엿볼 수 있다.

옥외전시장 한편에서는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을 짓고 관람객을 맞이하는 제주 동자석을 만날 수 있다. 동자석은 무덤을 지키고 죽

은 이의 혼을 달래던 석물로 문인석과 달리 어린아이 형상을 하고 있다. 정감 넘치는 이목구비와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은 모습에서 영혼의 안녕을 바라던 옛 제주인들의 마음이 담겼음을 알 수 있다.

삶과 그 이후까지 돌과 함께했던 제주의 문화를 자연과 더불어 오롯이 느껴보길 바란다.

정리. 편집팀

2천 년 전 흉노의 발자취를 발견하다

몽골 도르릭 나르스 160호 흉노 무덤 발굴 조사



55일간 진행된 도르릭 나르스 160호 흉노 무덤 발굴 조사 현장

국립중앙박물관은 1997년부터 몽골 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국립박물관과 함께 ‘한-몽 공동학술조사(MON-SOL project)’를 시작했다. 그 성과는 지난 20여 년간 학술 심포지엄, 특별전시, 도서 발간 등으로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현지 발굴 조사가 있다. 대륙 최초 초원제국을 세운 흉노의 남은 발자취, 무덤을 파내려 가는 긴 여정이다. 이번 발굴 조사는 작년에 이어 지난 7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55일간 진행됐다. 몽골 헨티 아이막 바양아드라가 숨에 있는 도르릭 나르스 160호 흉노 무덤 발굴 여정을 소개한다.

다시 찾은 몽골,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발굴 조사를 위해 다시 찾은 몽골은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새롭게 문을 연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내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몽골에 도착했다는 것을 실감하는 것도 잠시,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 양 옆으로 펼쳐져 있던 허허벌판에 게르 대신 들어선 아파트와 길목마다 보이는 한국 브랜드의 편의점들은 이곳이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리게 할 정도였다. 한국과 다름없는 퇴근길 교통체증으로 울란바토르 시내에 자리한 숙소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식당들이 문을 닫은 뒤였고 숙소 옆에 있는 이마트에서 컵라면을 사와 간단하게 식사하고 이튿날 현장으로의 여정을 위해 잠을 청하였다.

울란바토르에서 현장까지 거리는 500여 km. 예전에 비해 포장도로 구간이 더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10시간을 꼬박 달려 달이 뜬 무렵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편해지기만 하는 요즘, 덜컥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온종일 달리는 현장까지의 여정은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도착한 현장과 게르가 설치된 조사단 캠프는 다행히도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울란바토르에서 500여 km, 그곳에...

현재까지 발견된 흉노 무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도르릭 나르스 160호 흉노 무덤 발굴 조사는 작년에 이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1년 만에 돌아온 현장은 다행히 크게 손상된 부분이 없었지만, 워낙 큰 규모 탓에 정리를 한 번 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올해 조사는 안전을 위하여 무덤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호석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2023년 조사에서는 무덤 축조의 가장 마지막 단계였던 1차 돌무지 시설을 확인하고 제거하였는데, 올해는 그 아래에서 확인된 2차 돌무지 시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차 돌무지 시설보다 동-서 폭이 좁아졌지만 매장주체부 남-북을 짝 채워 돌을 깐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남-북 중앙축을 기준으로 돌무지 시설의 높이가 다르고, 부분적으로 돌무지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 나무 기둥을 눕혀 끼워 놓은 흔적도 확인하여 작업 공간을 구분한 후 구역별로 돌을 채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매장주체부의 가장 중앙에 있는 도굴갱은 2차 돌무지 시설에서도 확인되었다. 돌무지 시설 한가운데에 직경 약 5.5m로 돌이



3차 돌무지 시설까지 확인된 도르릭 나르스 160호 흉노 무덤 전경

제거된 원형의 도굴갱이 있으며, 이곳에서 도굴 과정에서 떨어진 리고 간 철제 차축두나 동북편, 터키석편 등이 확인되어 반갑고 아쉬운 마음이 교차하였다. 꼬박 17일을 30여 명의 사람들과 대형 크레인이 흙을 파내어 2차 돌무지 시설 조사를 마치고 신나게 더 아래로 파내려 가려는 찰나, 삽에 딱딱한 돌이 느껴졌다. 2차 돌무지 시설 바로 아래에서 남-북으로 길고 동-서 폭이 더 좁은 3차 돌무지 시설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양상은 2차 돌무지 시설과 유사한데, 이 층부터는 중앙의 도굴갱 평면 형태가 방형에 가까워 도굴갱 네 벽에 판재를 설치하였던 도르릭 나르스 2호 무덤의 예와 같이 향후 내부 조사가 더 이루어진다면 도굴 방법에 대한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과제

일반적으로 흉노 무덤은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구조 때문에 무덤을 만들 때부터 안전 등을 위하여 계단(테라스terrace) 모양으로 땅을 파내려 간다. 보통은 계단을 이루는 수직 벽과 수평의 바닥면이 모두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도르릭 나르스 160호 무덤

의 벽면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굴곡이 져 있었다. 이런 특징이 무덤의 규모가 커서 다른 무덤에 비해 축조 기간이 길어져 무덤 내부를 보호하는 구조물을 설치한 흔적인지, 또는 무덤 축조 기술이 부족하여 생긴 결과인지 등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밝혀야 할 과제이다.

올해 조사는 지표면에서 약 5m 아래에 있는 3차 돌무지 시설과 2차 계단 시설 일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였다. 계단 한 층의 높이와 너비(높이 약 3m, 폭 약 1.5m)로 볼 때, 160호 무덤은 총 4개의 계단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목곽 윗면까지 깊이는 약 15m 정도로 예상된다. 앞으로 목곽을 만나기까지 무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2,000년 전 흉노 사람들의 무수한 노력을 만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연구하여 몽골 흉노 무덤 조사 방법에서 늘 한발 앞서 나갔던 ‘한-몽 공동학술조사팀’의 발자취를 잇고, 더 앞서나가기 위한 또 한 발을 내디딜 때이다.

글. 이나경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학예연구사



국립춘천박물관

오직 아이들을 위한 박물관의 진심

국립춘천박물관 영유아·가족 공간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새 단장

지난 8월, 국립춘천박물관은 새로 단장한 영유아·가족 공간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을 선보였다. 박물관에 첫걸음을 하는 모두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공간으로, 영유아·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본관에서 어린이박물관(북한문화관) 1층으로 이전해 설치했다.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0~3세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각으로 느끼고 마음껏 뛰노는 박물관의 경험을 선사하고자 '장애물이 없고Barrier-free', '디지털 매체가 없는Digital-free' 차별화된 영유아 공간으로 기획했다.



“어른들에게도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만큼 좋았고, 아이들에게
놀이로만 접하는 것이 아닌
실제 문화유산과 연결짓는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적입니다.”

“춘천시민으로서
기대하며 기다린만큼
예쁘고 의미있는 공간이어서
참 좋아요.”

-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을 방문한
관람객 설문 의견 중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공
간은 화~일요일 10:00~17:00
상시 입장 가능하며, 주중 오전
(화~금요일, 10:00, 11:00)에
한 해 예약제로 단체 관람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약 QR코드



그림책 영상 QR코드

이번 새 단장은 국립춘천박물관 대표 전
시품인 나한상·토기·종·보살상·탑을 박
물관의 주요 활동 다섯 가지인 탐색·조
합·표현·분류·체화와 연계하여, 대·소근
육과 여러 감각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공
간 구현을 목표로 기획되었다. 국립춘천
박물관 전시품 <산 모양 청화백자 필세>의
울창한 산의 형상에서 착안해 강원도의
자연 속에서 문화유산과 편안하게 소통하
는 체험들이 가족들을 맞이한다.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에서는 영유
아·가족이 여섯 구역에서 여섯 가지 놀이
를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관 이후 줄곧
가장 선호도가 높은 '자연 속을 누벼요'이
다. 강원의 산을 지나, 강을 오르내리고, 돌
다리를 건너는 등 아이들이 온몸으로 뛰
노는 공간이다. 두 번째 '짜잔! 변신해요'는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
품 나한상(부처의 제자)을 활용한 공간이
다. 나한이 쓰는 가사(망토로 대체)를 걸쳐
보고, 회로애락이 담긴 나한의 표정을 자

석 퍼즐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세 번째 '무
너를 만들어요'는 강원의 토기 문양을 체
험하는 공간으로 그릇에 조각을 붙여 형태
를 완성하고, 온몸으로 또는 손으로 대형
토기 모양 메모리품을 눌러 문양을 창의
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선림
원 터에서 발견된 '종' 모형에 들어가 소리
를 체험하는 '소리로 느껴요'이다. 이곳에서
마라카스, 캐스터네츠, 북 등을 신나게 두
드리며 따로 또는 같이 소리와 리듬을 만
들 수 있다. 다섯 번째 '조각들을 쌓아요'에
서는 한송이 옛 절터의 보살상을 대형 쿠
션으로 만들고 크고 작은 탑을 쌓을 수 있
다. 마지막 '자유롭게 나누어요'는 다섯 가
지 대표 전시품을 분류하는 공간이다. 나
한상, 보살상, 종, 토기, 탑을 재질(나무, 천,
실리콘, 아크릴), 색상, 크기에 따라 분류
해 벽면에 꽂고 테이블에 놓는 등 자유롭
게 활동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마치고 나
가는 공간에는 다섯 가지 문화유산 사진
을 배치해 상설전시실에서 전시품을 친근
하게 느낄 수 있도록 고려했다.

관람객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하나어린이집의 자문을 구해 시설을 마련
했다. 또한 점자 지도를 비치하고, 실내용
휠체어와 자세 유지를 위한 특수 의자를
마련했으며 구역마다 음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곳을 소개하는 그림책에 QR
코드를 부착해 소리와 영상으로도 내용
을 전달한다. 이외에도, 수유와 이유 전용
공간을 마련해 관람객 편의성을 강화하였
고, 시범 운영 기간에 여러 단체와 개인의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개관한 지 3개월째 접어드는 요즘, 이
공간의 경험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
를 가져다줄까를 생각한다. 50년 후 아이
들의 삶에 '아장아장 박물관 첫걸음' 공간
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면, 기획자로서 단
연코 설레는 일이자 향후 분석, 정리해 볼
만한 중장기적 연구 과제이지 않을까? 고
민해 본다.

글, 박연희 국립춘천박물관 학예연구사

7

국립광주박물관



시간이
머문 자리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재래시장 결을 지키는 광주송정역에서부터 광주 여행이 시작된다. 마을 공동체가 간직한 과거의 시간이 현재의 문화로 남은 양림동에서 근대 건축물을 만나고 저항과 공존의 굴곡진 기록을 예술로 승화시킨 공간을 거니는 시간. 11월의 광주가 건넌 늦가을 정취를 따라 걸었다.



1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송재근



청자 국화
문양무늬 큰 화병
중국 원
높이 68.8cm
선도 564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김지호

2 1913 송정역시장

자동차 30분 17km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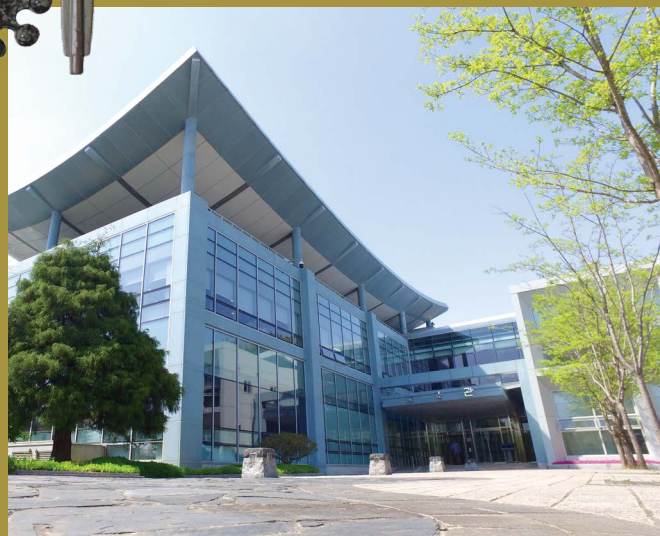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송재근



광양 증흥산성
쌍사자석등
통일신라
높이 2.5m
국보
본관 12804



화순 대곡리 출토
청동기 일괄
초기 철기
국보
선수 2578-2583



자동차 20분 7km

4

국립광주박물관

삼레

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송재근

문화로 남은 마을 공동체 양림동역사문화마을

버드나무 숲이 있는 천변에 자리 잡은 양림동은 기독교 유적과 전통 문화유산이 어우러져 있어 '역사문화마을'이라는 이름이 더없이 잘 어울리는 마을이다. 1902년 말, 미국 선교사 배유지와 오웬이 목포를 통해 광주로 들어와 양림리 동산에 자리를 잡은 후 수피아여학교, 송일학교, 제중원(현 광주기독병원) 등을 세우며 오늘날 양림동역사문화마을의 기반을 다졌다.

사직산과 양림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경사면에 조성된 마을은 오래된 거목과 이국적인 정취를 품은 근현대 건축물이 어우러져 있다. 양림동은 광주 최초로 서양 근대 문물을 받아들인 문화의 통로이자 나눔과 헌신의 공동체 역사를 지닌 곳이다. 특히 서양식 근대 건축물과 한옥이 이웃하고 있는 풍경은 양림동 특유의 고풍스러운 편안함을 전해준다.

광주의 교육과 의료의 뿌리가 된 우일선 선교사의 사택, 조선시대 상류층 가옥의 품위가 느껴지는 이장우 가옥, 선교사로 활동하다

순교한 오웬을 기리는 오웬기념각 외에도 지역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폐품을 활용해 꾸민 펭귄 마을까지. 마을과 공동체 그 자체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양림동 산책길에서 근대와 현대를 오고 가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날 수 있다.

SINCE 1913 광주송정역 옆 송정역시장

호남선과 호남고속선, 경전선의 철도역이자 경전선의 종점이기도 한 광주송정역. 도심과는 거리가 멀어 광주역에 비해 이용객이 적었지만, 고속철도역 일원화 이후 많은 이들이 광주송정역에서 내려 광주를 만난다.

1913년 가을, 보통역普通驛인 송정리역으로 영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작은 양곡창고 자리에 문을 연 아담한 역이었다. 하지만 2009년 광주송정역으로 이름이 바뀌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광주·전남 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바로 이곳에 '1913 송정역시장'이 있다.

1913년에 문을 연 재래시장이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바로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추억' 때문이다. 1913년 '매일 송정역전 시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고 10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인근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 시장에 스민 오랜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1913 송정역시장'이란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고, 켜켜이 쌓아 올린 그 시간만큼 깊어진 추억을 만날 수 있는 시장이기에 광주 여행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송정역시장은 오래된 것을 새로 바꾸기보다 옛 모습의 정취를 간직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사진 찍기 좋은 곳들이 많아 레트로Retro 분위기를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생기 있는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된 간판들과 50년 이상 시장을 지켜온 상인들이 여전히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이곳에서는 오락실과 방앗간, 문구점들을 둘러보며 추억 놀이에 즐겨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도시에 스민 역사의 오페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비엔날레

인권과 평화로 대표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예술적으로 승화하고자 2015년에 개관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다양한 콘셉트와 주제로 조성된 공간에서는 전시와 공연, 축제와 같은 행사들이 열린다. 열린마당, 하늘마당, 아시아문화광장 등의 야외공간은 광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처이기도 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름다운 외관도 눈에 띄지만,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문화적 교류가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옛 전남도청 등을 둘러보며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저항과 희생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다.

지금 광주에 가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뉴욕 타임스』가 ‘세계 비엔날레 현장에서 꼭 들려야 할 중요한 정착지’로 꼽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현장이다. 1995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전이다. 예향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아시아 최초로 시작된 비엔날레인 만큼 세계적 인지도를 자랑한다.

서구 중심의 미술 무대를 아시아로 이동시킨 원동력을 마주할 수 있는 이번 광주비엔날레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올 12월 1일까지 개최된다. 30주년을 맞아 30개국 73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재래시장부터 우주공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판)에서 울려 나오는 다양한 의미(소리)를 탐색한다.



양림동역사문화마을
주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화로446번길 7
문의: 062-676-4486
운영시간: 24시간 개방(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1913 송정역시장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8번길 13
문의: 062-942-1914
운영시간: 월~목 11:00~22:00, 금~일 11:00~23:00(매달 2, 4번째 월요일 휴무)
입장료: 무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운영시간: 화·목·금·일 10:00~18:00, 수·토 10:00~20:00(월요일 휴무)
문의: 1899-5566
입장료: 무료(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파크, 어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관 및 유아놀이터), 변동(문화정보원 아카데미, 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복합관 등)

국립광주박물관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문의: 062-570-7000
운영시간: 10:00~18:00(4·11월 첫 번째 월요일 휴관)
입장료: 무료

(위) 1913 송정역시장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김지호
(아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관광공사 포토코리아-송재근

함께 빛나는 특별한 동행

국립광주박물관

광복 이후 지어진 최초의 지방 국립박물관으로 1978년 개관한 국립광주박물관. 신안 증도에서 출토된 해저문화유산을 비롯해 전라남도 산재한 문화유산을 수집·보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중후한 외관 속에는 그만큼 다채로운 전시품들을 품고 있다.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아시아도자문화실은 국립광주박물관의 상설전시실이다. 고려청자 조형 기술의 전통을 물려받은 분청사기와 왕실부터 일반 서민까지 널리 사용했던 조선백자 등 다종다양한 도예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신안군 증도 앞 바다에서 발견된 신안해저문화유산과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동아시아의 도자기들도 전시 중이다.

내년 3월까지 열리는 특별전은 상설전시

와 어우러져 더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이라는 주제 아래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를 볼 수 있는 귀한 전시이다. 고대 신라, 가야의 장승 의례에서 사용되었던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는 대부분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본떠 만든 것인데 이 그릇에는 죽은 이의 마지막을 함께 하고 사후에도 평안한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던 고대인의 마음이 깃들여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 공개하는 작품은 총 250여 점으로 경주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30호 무덤 출토 〈토우장식 긴목 항아리〉(국보)도 전시한다. 또한 영산강 유역에서 찾은 상형토기를 함께 전시해 각 지역의 고유한 장승 의례를 살펴볼 수 있게 했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마련한, 영원을 머금은 특별한 시간 속으로 떠나보자.

정리. 편집팀



국립광주박물관

문화유산을 지키는 젊은 수호자들

2024 신규 임용 학예연구사

2024년 국립박물관 신규 임용 학예연구사 9명이 일주일간 교육을 마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섰다.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의 길 위에 선 그들의 얼굴엔 설레고 벅차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에 약간 긴장된 표정이 교차한다. 국립박물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학예연구사들의 힘찬 포부를 들어본다.



국립박물관의 새로운 얼굴을 소개합니다



이지원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꿈꿔왔던 국립중앙박물관에 들어와 설레기도 하지만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조금 두려운 마음도 함께 들었습니다. 다양한 실무 교육을 듣고, 박물관의 많은 선생님께 인사하고 조언을 들었던 시간으로 설렘은 커지고, 두려움은 조금씩 잦아들면서 앞으로의 박물관 생활 내내 이 시간이 마음속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열정을 잊지 않고, 선배님들이 걸어온 길을 올곧게 따라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학예연구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다희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일주일간의 교육은 박물관을 지탱해 온 선배님들의 자부심과 노고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문화유산을 지켜온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유물관리부의 일이 지닌 맥락과 가치를 알게 되어 뜻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작점에 선 학예사로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새로운 고민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교육 기간 동기들과 나눈 설렘, 선배님들께서 보여주신 책임감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리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명훈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지난 일주일은 선배님들의 무한한 환영을 받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동기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보내주신 환영을 가슴 속에 품고 앞으로 박물관의 일원이 되어 당당한 학예연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도 연구에서도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박물관에 도움이 되는 학예연구사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오랫동안 관람객으로 방문해 왔던 박물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렘과 함께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성실히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의 교육 기간에 반갑게 맞아주시고 귀중한 경험담과 조언을 들려주신 선배님들과 처음의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나눈 동기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손미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유난히 뜨거웠던 2024년의 여름날, 면접을 보러 오는 길과 끝내고 나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이 길이 출퇴근길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가을로 향하는 길목에 출근하면서, 날마다 변하고 있는 박물관의 단풍 색깔만 보아도 뿌듯함이 느껴지는 것은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다양한 전공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동기들을 만나고, 박물관의 업무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도해 주시는 선배님들의 교육을 들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첫 출근을 하면서 가졌던 자세와 다짐을 잊지 않고 꾸준히 발전하고 성장하는 연구사가 되겠습니다.



진홍주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꿈에 그리던 학예연구사로 임용되면서 설렘은 잠시였습니다. 박물관의 역할을 알기에 수많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먼저 학예연구사로서의 길을 걸어나 선배님들께서 강연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면서 박물관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걱정이 사그라졌습니다. 많은 선배님의 진심 담긴 조언을 바탕으로 박물관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이 순간에 느낀 생각들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학예연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지원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경주어린이박물관학교 서포터로 활동했던 것을 계기로 박물관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시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일주일 동안 박물관 선배님들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국립박물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업무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기간동안 배운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에서 해나갈 업무와 경험들이 기대됩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적용하여 관람객이 박물관에 대해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학예연구사로 채용된 만큼 어린이부터 노년층,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의 사랑과 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은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관람객이자 지방생의 마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를 오랜 시간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인지 지금의 자리가 여전히 얼떨떨하지만, 선배님들의 체계적인 교육 속에서 제 위치를 조금씩 체감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과 학예연구사의 책임에 대해 하나씩 알아갈수록 '내가 잘해 낼 수 있을까?'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부족함을 깨닫고 이를 잘 채운다는 마음으로 매사에 겸손하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닦아주신 길을 저의 속도로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박은지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년 9월 30일은 앞으로의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상상만 했던 기관에 학예연구사로 입사하는 것이 현실이 되다니요.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교육기간에 선배님들이 이야기한 자부심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두루 느끼며, 모든 순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박물관 교육을 위해 먼저 경험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늘 배우겠습니다.

정리. 편집팀



기억의 서가 속으로

Into the Bookshelf of Memories



QR코드에 접속하면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의 고즈넉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열린마당 계단을 올라가면 박물관 속 또 다른 보물창고를 만난다.

박물관 도서관을 가득 채운 도서와 전시 도록들.

층층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본다.

박물관에서 코스프레 대회를 한다고?

국립중앙박물관 곳곳에서 열린 '국중박 정보'



국립중앙박물관은 청년세대의 문화 쉼터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박물관이라고 하면 역사, 유물, 공부라는 키워드가 먼저 떠오르는 만큼 아직은 청년세대가 거리감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다. 청년들의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국립기관의 '의외성'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가장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던 전시품 코스프레(Costume Play)대회를 구체화하면서 행사 '국중박 정보'가 시작됐다.

*정보: 정기모임의 줄임말



전시품 코스프레 대회 '국중박이 살아있다'

'국중박이 살아있다'는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런웨이에 서는 코스프레 행사다. 약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였으며, 참가 동기·기획 방향·코스프레 기본 사진과 영상 등으로 본선 행사에 진출할 참가자를 선정했다. '의외성'에 초점을 맞춰 박물관 역사상 최초로 코스프레 대회를 기획하였지만, 담당자로서 '모 아니면 도',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예선 참여율이었다. 전시품 코스프레 대회는 새롭고 놀라운 아이디어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하지만 예선 공고가 시작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참가자들의 면면도 정말 다양했다. 회사 동료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참여한 사람부터 코스프레를 좋아해서 참여한 사람, 국사학 전공자, 동화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예선에 참여하였으며 총 2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정하였다.

본선 진출 20팀은 '국중박 정보' 첫날인

10월 6일 런웨이에 참가하였으며, 무대는 열린마당 계단을 내려오는 것으로 관람객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런웨이 무대는 상상하지도 못한 전시품 코스프레의 연속이었다. '경천사 심층석탑', '백제금동대향로', '일월오봉도', '동자상', '복희와 여와', '백자청화영지품꽃무늬접시', '단원 풍속도첩 속 씨름' 등의 전시품들로 분장한 참가자들이 열린마당의 계단을 내려오며 자태를 뽐냈다.

반응은 정말 뜨거웠다. 관람객들은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참가자들에게 보냈으며, 런웨이를 마치고 내려온 참가자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서기도 했다. 코스프레 참가자들과 관람객이 한데 어울려 서로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누며 대회를 즐기는 모습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들이 살아 움직이며 관람객들과 노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하였다. 권위 대신 재미

가 느껴지는 박물관, 즐기는 박물관의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대회의 형식상 심사위원을 모시고 상을 수여하였지만, 모든 참가자의 결과물이 완성도 높고 진심이 가득했다.





청년 전통 예술인의
야간 공연
'한밤 마당'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공연
'가을 음악 한 권'

청자정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찻잔인 다완에 대해
알아보는 '말다완'



스티커를 배부받아
꾸미기를 해볼 수 있는
'국꾸'

구분	프로그램명	행사 '국중박 정보' 세부 프로그램 내용
국중박이 살아있다	국중박이 살아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품을 콘셉트로 진행하는 코스프레 대회로, 예선을 거쳐 선정된 참여자가 런웨이 퍼포먼스 진행
	말다완	다도 문화의 우수성과 다완에 대해 소개하는 다도 체험
마당놀이판	국중박 투어	박물관의 다양한 야외 공간을 탐험하는 보물찾기 형식의 투어 프로그램
	국꾸	스티커를 배부 받아 다이어리 꾸미기와 타투 스티커 꾸미기를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판	한밤마당	전통과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 전통 예술인의 민요와 판소리를 활용한 야간 공연
	가을 음악 한 권	코러스, 밴드, 댄스, 아카펠라, 재즈 등 다양한 장르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음악가들의 버스킹 공연

전시품 코스프레 대회 소식이 알려지고 인스타그램과 X(구 트위터)에 많은 분이 댓글을 남기며 행사가 입소문을 타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다들 감탄하였고, '재미있는 행사를 기획해 줘서 고맙다'라는 반응과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며 '내년에도 참가하고 싶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문화 콘텐츠의 공급자 청년세대

국립중앙박물관이 청년세대의 정기 모임 장소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기획한 만큼, '국중박 정보'는 전시품 코스프레 대회뿐만 아니라 청년세대가 좋아할 만한 요소들을 결합한 체험 행사와 청년 예술가들이 박물관의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활용하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일주일간 진행하였다. 체험 행사로는 청자정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찻잔인 다완에 대해 알아보는 '말다완', 박물관 야외정원 곳곳을 탐험하고 경품

을 수령하는 '국중박 투어', 스티커를 배부받아 꾸미기를 해볼 수 있는 '국꾸'를 진행하였는데, 청년세대는 물론 가족 관람객들의 참여도도 높았다.

이번 행사는 무엇보다 청년세대가 단순히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것만이 아닌, 문화 콘텐츠의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기획하였다.

우선 청년 전통 예술인이 전통과 시대에 대한 고민을 민요와 판소리로 풀어내는 공연 '한밤마당'을 야간 개장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많은 관람객에게 공연도 보고 박물관 야간 개장도 즐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행사는 다양한 장르로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음악가들의 거리 공연 '가을 음악 한 권'을 진행하였다. 시간대별로 공간을 바꿔서 총 18팀이 진행한 거리 공연을 통해 관람객들은 청년 음악가들의 개성 넘치는 공연과 함께 아름다운 가을의 박물관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앞으로 박물관이 보여줄 의외성

소장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박물관은 새로운 행사가 추가되는 경우 수많은 부서가 모여서 협의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역사를 다루는 공간의 특성상 모든 콘텐츠의 내용은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지 않게,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게 여러 번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박물관은 관람객이 찾아주지 않으면 존재 의미가 없는 공간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의외의 면모를 보여주고 관람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청년세대에게 다가가기 위해 멈추지 않을 박물관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

글. 임채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학예연구사

한국문학을 사랑한 영국인 주교 리처드 러트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 한국실 특별전

〈함께 엮다, 리처드 러트와 조앤 러트의 한국에서의 삶과 유산〉Knitted Together: the Korean Lives and Legacies of Richard and Joan Rutt

2024.9.28.~2025.5.4.



리처드 러트는 시조, 한시 등 한국 고전 문학의 번역과 연구에 앞장섰던 한국학 학자였다

한강 작가의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쾌거 뒤에는 한강의 작품을 세계에 알린 번역이 있었다. 한국문학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는 지금,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리처드 러트(Richard Rutt, 한국명 노대영 盧大榮, 1925-2011)라는 영국인 주교를 마주하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은 후 한국 고전문학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리처드 러트 주교가 한국에서 보낸 20년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전이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Durham University, Oriental Museum)에서 열리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실 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동양박물관 최초의 한국실 전담 큐레이터가 개최한 첫 전시다.



리처드 러트와 조앤 러트

©Collection of Peter and Elisabeth Rutt

한국과 맺은 깊은 인연

리처드 러트는 한국 전쟁 직후인 1954년 28세의 나이에 영국 성공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견되었다. 전쟁의 잔해로 가득한 서울에서 2년간 한국어를 익힌 그는 1956년부터 8년간 경기도 안중에서 사제로 지내며 한국에서의 삶에 깊이 빠져들었다. 이후 1965년 서서울 부주교, 1968년 대전 주교를 역임하며 1974년 영국에 돌아갈 때까지 목회 활동을 계속하는 한편, 성미카엘신학교(성공회대학교의 전신) 교구목사, 휘문고등학교 영어 교사 등 교육자로도 활발히 활동했다.

리처드 러트는 영국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소속으로서 국립중앙박물관과도 오랜 인연을 쌓았다. 그가 국립중앙박물관 초대 관장 김재원 박사와 1960년대 주고받은 서신을 보면, 왕립아시아학회가 박물관의 발굴 조사를 지원하는 등 한국 문화유산 연구를 위해 협력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과의 교류는 러트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박물관신문』 1974년 3월호 기사에 따르면 러트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 말기의 문화'를 주제로 강연도 진행했다. 성공회 신부였던 그가 이러한 강의를 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의 언어와 역사, 문화에 심취해 번역과 저술, 출판 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힘썼던 그의 노력이 담겨 있다.

한국문학과 문화에 심취했던

한국학 연구자

리처드 러트는 한국 고전문학 번역에 앞장서 한국학 연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경기도 안중에서 한국의 시조를 처음 접하고 시조 번역을 시작했다. 이규보의 산문과 한시를 여러 편 번역하여 각종 시선집에 소개했으며, 1971년에는 총 264편의 시조를 번역한 『The Bamboo Grove』를 출간했다. 한국어를 읽을 수 없는 사람

들에게 시조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고자 저술한 이 시조집은 한국어 문학 번역의 최고 역작 중 하나로, 현재 미국에서 대표적인 시조집이자 이론서로 꼽힌다. 러트는 한국 고전소설에도 관심을 가져 「구운몽」, 「인현왕후전」, 「춘향가」를 번역한 『Virtuous Women』(1974)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을 떠날 때도 『동국이상국집』 등 이규보의 여러 저작을 챙겨가 3년 만인 1977년 『백운소설』을 완역해 발표했다. 이러한 러트의 저서는 한국문학이 영어권으로 확산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과 다산문화상을 수상했다.



영국 더럼대학 동양박물관 특별전 전시실

그의 아내 조앤 러트(Joan Rutt, 1919-2007) 또한 한국 요리책과 이방자 여사의 자서전 영문판인 『The World is One』(1973)을 편집했다. 이처럼 일찍부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러트 부부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은 K-컬처, K-문학, K-푸드가 선전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트 부부의 한국에서의 삶과

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

이번 특별전은 러트의 동양박물관 기증품을 중심으로, 1950년대~1970년대 한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들었던 러트 부부의 삶을 소개한다. 병풍, 가구, 문방구, 복식, 종교 물품 등 부부가 실제 사용했던 생활용품부터 선물 받거나 수집했던 작품까지 다

양하게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 공개되는 흑백사진에는 성직자이자 한국학 연구자로서 보낸 20년이 다채롭게 나타난다. 이들 사진은 마치 타임캡슐처럼 당시 한국의 생활상이나 사라져가던 풍습을 생생하게 담은 20세기 중후반 시각 자료로도 의의가 크다. 한편 이번 특별전과 연계하여 리처드 러트의 미완성 자서전도 출간되어 전시의 의미를 한층 더할 예정이다.

동양박물관에 한국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기증품

더럼대학 동양박물관은 영국박물관, 빅토리아앨버트박물관에 이어 영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한국 문화유산을 소장한 곳으로, 러트 부부는 동양박물관 한국 컬렉션의 가장 주요한 기증자이다. 이들의 기증으로 한국 컬렉션이 두 배 이상 확대되고, 한국실이 독립된 전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1991년을 시작으로 2011년, 2024년에도 기증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특별전에는 올해 신규 기증품이 최초로 공개되었다.

러트 부부의 기증은 동양박물관이 한국실을 자체 설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상당한 규모와 다양성을 갖춘 기증품을 전시하기 위해 별도의 상설 전시 공간이 필요했고, 2013년 처음으로 단독 한국실이 문을 열었다. 이후 동양박물관은 한국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련 행사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지원으로 채용된 한국실 전담 큐레이터는 소장품 연구와 신규 입수를 바탕으로 2026년 한국실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 이어 한국실 지원 성과가 다시 한번 빛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글: 심초롱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학예연구사
사진 제공: Durham University Oriental Museum

사유에 깊이를 더해주는 음악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초월:transcendence〉

철학자 니체는 ‘음악을 통한 사유가 가능하며, 음악에 의해 사유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기획공연 ‘사유하는 극장’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려는 하나의 시도다. ‘사유하는 극장’ 네 번째 공연 〈초월:transcendence〉(이하 〈초월〉)은 그 정점이었다.

사유에 절대적인 답은 없다

‘사유하는 극장’은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사유의 방’ 개관과 함께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2022년부터 시작한 자체 기획프로그램이다. ‘사유의 방’은 국보로 지정된 반가사유상 두 점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생각에 잠긴 두 점의 조각상이 439m²의 널따란 공간에 나란히 앉아있다. 스스로를 옥죄는 듯한 결과부좌가 아닌, 조금은 느슨하게 풀어진 반가부좌의 자세는, 또한 보일 듯 말 듯 어렴풋하게 미소를 머금은 표정은 보는 이에게 평안함을 선사한다.

‘사유하는 극장’은 바로 이 ‘사유의 방’의 연장선에 있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기획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1월 〈음류 音流: 모든 사이에 흐르는 사유의 음악〉에 이어 올 9월 〈초월〉 또한 피아니스트 양방언의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양방언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인연이 깊은데, 첫 인연은 2018년이다. 당시 그는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 〈칸의 제국 몽골〉의 연계 공연 〈몽골 초원의 바람〉으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상설전시장 ‘역사의 길’에 서 있는 두 개의 전시물 ‘광개토대왕릉비’와 ‘경천사 십층석탑’의 외벽 영상 Media Facade 전시를 위한 디지털 실감 영상관 AR(증강현실)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도 작곡했다. 협업할 때마다 그는 전시에 어울리는 곡을 작곡하는 열정을 보였고, 이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지난해 〈음류 音流〉 공연을 앞두고 양방언은 〈SAYU〉와 〈Rainbow Reunion〉, 〈The Hidden Gate〉 등 세 곡의 신곡을 선보였다. 당시 그는 “‘사유의 방’ 관련 곡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까지와는 많이 달라 솔직히 쉽지 않았습니다. (...) 길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다소 조금한 마음이 들던 어느 날, 문득 ‘그래 이게 생각이라는 것, 즉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마다 생

각하는 것, 결국 하나의 절대적인 답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요지는 사유에 답은 없다는 것.

이번 공연 〈초월〉을 앞두고도 비슷한 심경을 전했다. “(‘사유의 방’) 정적인 공간이기도 한데, 미지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안에 아주 큰 힘이 있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사람마다 답이 있고, 그래서 저의 답은 ‘결론은 없다’입니다.” 이번 공연을 위해 그는 〈Lotus Flower〉, 〈Invisible Light〉, 〈Inner Space〉 등 세 곡을 새롭게 작곡했고,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6곡을 포함, 이번 공연에서 그는 총 15곡의 음악을 들려주었다.

경이에서 전환으로, 그리고 초월로

공연은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 자연의 감각Sense of Nature, 2부 연결 혹은 접속의 감각Sense of Connect, 3부 초월의 감각Sense of Transcendency. 구성은 민세롬 연출가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공연의 전체적인 콘셉트를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지금 현대인들이 왜 사유를 해야 하고, 왜 이런 전시를 해야 하고, 왜 선생님 음악이랑 만나야 하나 이런 걸 질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절대적인 보편 진리를 깨닫는 걸 사유라고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의 많은 예술가나 철학자들은 일상의 감각에서 사유를 소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 감각에서 사유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들을 선생님 곡에서 찾아서 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오롯한 사유를 위해, 이번 공연에서는 부수적, 혹은 보조적인 수단들을 제거했다. 비어있다시피 한 무대에는 연주자와 악기만

서 있었다. 영상과 조명이 빈구석을 채웠다. 특히 기존의 콘서트와 달리 이번 콘서트에서 그는 한 마디도 덧붙이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장을 열 때마다, 각 장의 콘셉트를 설명하며, 사유의 길을 인도하는 그의 해설이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역시 양방언의 음악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사유의 방’을 모티프로 작곡된 음악은 그의 이전 웅장한 음악과 결을 달리하나, 그의 음악에 새겨진 역사성, 시간성 등은 여전하다.

민세롬 연출은 이를 이렇게 정리한다. “저에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양방언 선생님의 새로운 시도가 조명되길 바라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와 관련된 이 공연을 통해 박물관이 전통적인 모습이 아니라 역동적인 시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바랍니다.”

다시 니체로 갈무리한다. 니체는 말했다. “음악이 사유에 날개를 달아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까? 사람들이 음악가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철학자가 된다는 것을”이라고. 우리는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음악이 깨달음에 이르는, 나아가 사유의 깊이를 더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유하는 극장’이 왔고, 또 가야 할 길 아닐까.

글. 김일송 공연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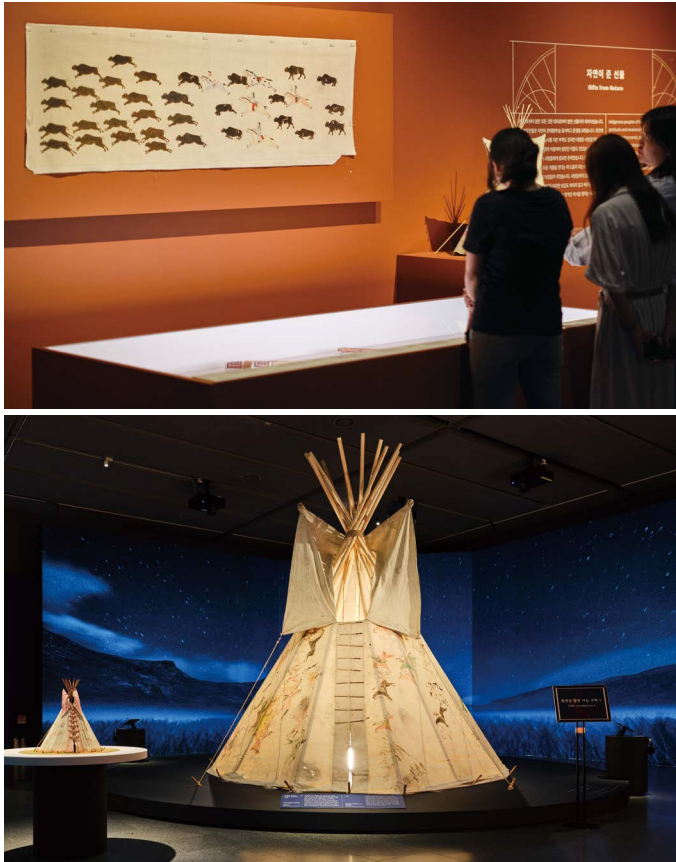
책공장 이안재를 운영하면서, 희곡, 평론, 아카이브북 등 연극 관련 도서를 출판하고 있다. 공연문화 월간지 『싹플레이빌』 편집장과 서울문화재단 월간 『춤:in』 편집장,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플랫폼 ‘더아프로’ 편집장을 지냈다. 현재 국립발레단 소식지 『보내드림 POINT & FLEX』 편집장을 맡고 있다.



공연 중인 피아니스트 양방언(왼쪽 하얀 의상)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감동의 전시종료

10월 29일부터 부산 순회전 시작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이 10월 9일 전시를 종료하고 10월 29일부터 부산 지역 순회에 들어갔다.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북미 원주민의 문화와 예술을 다뤄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피상적으로 생각했던 북미 원주민들의 진정한 모습을 조명해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전시였다’, ‘전시물에 담긴 설명과 북미 원주민들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뭉클했던 순간이 여러 번이었다’라는 등 긍정적인 관람평이 주류를 이루었다. 전시 막바지인 10월 황금연휴에도 많은 관람객이 특별전을 찾아 북미 원주민의 지혜에 공감했으며, 감동과 울림이 있는 전시라는 후기를 남겼다. 언론계, 학계의 반응도 뜨거웠다. ‘북미 원주민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시장을 둘러보다 보니 낯선 감정은 점차 희미해지고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에게도 각자의 얼굴과 목소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언급은 왜 이 전시를 반드시 봐야 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 미국사학회와 이주사학회가 함께 진행한 ‘원주민의 역사, 원주민이 만든 역사’ 전시 연계 학술대회에서는 ‘원주민에 관한 잘못된 선입견과 신화를 깨쳐볼 수 있는 하나의 시도’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없애고, 보기 어려운 외국 문화유산의 관람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된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순회전시가 10월 29일에 시작돼 내년 2월 16일까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큰 호응이 있었던 분야별 전문가가 들려주는 대중 강연회도 11월 두 차례 예정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품 및 소장품 관련
매뉴얼 영상 공개

박물관 베테랑 전문인력이 직접 노하우 전해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미술관에서 소장품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숙지해야 하는 ‘소장품 다루기’와 ‘전시품 설치·연출’ 매뉴얼 영상 32종을 공개했다. 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운영 중인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교육아카데미’와 연계한 핵심 온라인 학습 콘텐츠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랜 업무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영상 제작에 참여해 업무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전했다. 영상은 ‘전시품 설치·연출’과 ‘소장품 다루기’로 나뉜다. 먼저 ‘전시품 설치·연출’ 분야에서는 침핀을 이용한 고정용 고리 만들기, 받침대에 침핀 고정하기, 매듭 묶기 등 전시품을 설치하고 연출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기술을 설명하였다. 또한 침핀과 낫싯줄을 이용한 전시품 설치, T 매듭을 활용한 전시품 설치 등 기본 기술을 활용하고 응용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장품 다루기’ 분야에서는 소장품을 다루는 기초적인 방법을 설명했다. 동선에 초점을 맞춘 이동 도구와 격납 도구, 표면에 직접 닿는 중성지와 솜포 등 포장 재료를 준비·활용·정리하는 방법, 소장품을 상자에 넣을 때 완충하고 끈을 묶는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전국 박물관·미술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병풍과 족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자세한 다루기 방법을 제시했다. 영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전문인력 교육 이러닝 플랫폼인 ‘뮤지엄 아카데미’에 공개돼 있으며, 누구나 회원가입 후 시청 가능하다.

국립경주박물관, 관람객 백만 명 돌파

다양한 전시 콘텐츠로 예년보다 관람객 증가해

2024년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로써 국립경주박물관은 10월 7일 개관 79년을 맞이함과 동시에 관람객 수 100만 명이라는 겹경사를 맞게 되었다. 관람객 증가에는 다양한 전시 콘텐츠 구성과 연휴 기간 가족 단위 관람객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7월 16일 문을 연 경주어린박물관학교 70주년 특별전 <함께 지킨 오랜 약속>은 이미 20만 명이상이 관람했으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전시 기간을 10월 27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누구나 전시품 모형을 만지고 음성해설을 들으며 경주의 문화유산을 다양한 방법으로 체험하는 콘텐츠를 도입한 것 역시 관심과 흥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국립경주박물관 함순섭 관장은 “앞으로도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전시와 유익한 교육·행사 등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립대구박물관, ‘30년의 동행’ 학술대회 개최

영남권 문화유산의 발굴 및 조사 성과 총망라



국립대구박물관은 지난 9월 18일 영남문화유산연구원과 공동으로 ‘30년의 동행’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30주년을 맞이한 양 기관의 고고학 조사 연구와 전시, 소장품 관리 성과를 살펴보고 대중 고고학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학술대회는 고고학 지식의 생산과 새로운 소비 방식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권구 계명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먼저, 영남문화유산연구원이 30년 주요 유적의 조사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선사시대(이수정)와 원시~역사시대(권옥택)로 나누어 발표했고, 국립대구박물관에서는 국립대구박물관의 고고학 전시 성과와 과제(고영민), 국가귀속유산의 현황과 과제(윤서경)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대중고고학의 실천과 매장유산의 활용 전략(김은경)에 대한 세종문화유산연구원의 발표가 있었다. 각부의 발표에 이어 이수홍(울산문화재단연구원), 장용석(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김민철(국립중앙박물관), 황보창서(국립공주박물관), 김동운(영남문화유산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린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어린이가 그린 우리 문화유산 전시회

대구·청주 국립박물관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

전국 국립박물관에서는 매년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부여, 진주, 김해, 전주, 광주, 대구, 청주 순으로 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국립대구박물관은 지난 8월 12일 진행한 ‘제24회 어린이 그리기 잔치’의 수상작을 2025년 3월 2일까지 해설관에서 전시한다. 개관 30주년을 맞아해 국립대구박물관의 대표 전시품 또는 가장 좋아하는 곳을 그린 작품인 만큼 어린이의 시선에서 그려진 국립대구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11월 4일 ‘제31회 어린이 문화유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대회는 사전에 선착순으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 18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은 11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로비에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청주박물관 누리집과 유선전화(043-229-6315, 평일 9:00~18: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인사동정(9.16.~10.15.)			
전입	2024-9-30	행정주사보 윤진희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2024-9-30	행정서기 이은지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9-30	행정서기 이성호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2024-10-10	행정주사보 박양규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전출	2024-10-14	행정주사 조의자 국립국악원	→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2024-9-30	행정주사보 김보은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2024-9-30	행정서기 이애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국악원
	2024-9-30	행정서기 오정택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 국립현대미술관
신규 임용	2024-9-30	행정서기 이수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홍보교류과	→ 한국예술종합학교
	2024-9-30	행정서기 서수미 국립중앙박물관 문화홍보교류과	→ 국립국악원
	2024-10-10	행정주사 현정복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국립현대미술관
	2024-10-14	행정주사보 김세희 국립중앙박물관 고객지원팀	→ 국립국악원
지원 근무	2024-10-14	행정주사보 김소연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 국립국악원
	2024-10-14	행정주사보 박현미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운영과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이지원 신규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정다희 신규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휴직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이명훈 신규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최종은 신규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김경은 신규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세계문화부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손미은 신규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
수습 임용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신지원 신규임용	→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박은지 신규임용	→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9-30	학예연구사 시보 진홍주 신규임용	→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실
	2024-10-14	7급재용 후보자 홍주원 수습임용	→ 국립중앙박물관 디지털박물관과
휴직	2024-09-30~2025-10-12	행정서기 이일화 국립중앙박물관	→ 휴직
	2024-10-08~2025-04-07	행정주사보 진완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 휴직

	11 NOVEMBER	12 DECEMBER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중앙	<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일기 달기 있기), 문학유산 속 마음 2024.11.19.~</div> </div> <div>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div> <div>〈달항아리를 만든 곳, 금사리〉 2024.6.25.~2025.6.22.</div> <div>〈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자〉 2024.11.26.~2025.3.3.</div> <div>〈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2024.11.30.~2025.3.3.</div>				
경주	<div> <div>(수장고에서 찾은 보물(가제)) 2024.12.10.~2025.3.9.</div> </div>				
광주	<div> <div>(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의 토우장식 토기) 2024.11.12.~2025.3.10.</div> </div>				
전주	<div> <div>〈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div> <div>〈서울구경가저스라, 임을파라 갈까부터-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가와 춘향전〉 2024.10.1.~2025.1.5.</div> </div>				
대구	<div> <div>(항의 문화사: 염원에서 취향으로) 2024.12.7.~2025.3.2.</div> </div>				
부여	<div> <div>옥외전시장 재개장 2024.08.26.~</div> </div>				
공주	<div> <div>옥외 석조문화유산 정원 (수호의 정원) 2024.9.10.~</div> <div>〈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2024.9.10.~2025.2.9.</div> </div>				
진주	<div> <div>〈사기장(沙器場), 흙을 빚어 삶을 이롭게〉 2024.10.1.~2025.2.23.</div> </div>				
청주	<div> <div>〈기록, Map of You〉 2024.6.25.~11.3.</div> </div>				
김해	<div> <div>〈히타이트〉 2024.10.8.~2025.2.2.</div> </div>				
제주	<div> <div>옥외정원 (등자상 조각 정원) 2022.11.11.~</div> </div>				
춘천	<div> <div>(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div> <div>(어느 수집가의 초대) 2024.9.11.~11.24.</div> </div>				

나주	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2023.12.15~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2021.12.21.~2024.12.31.
	〈빛, 고대 겨울의 속삭임〉 2024.10.8.~2025.2.9.	
익산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2024.9.10.~11.24.	
	〈미륵사지 출토 치미 -제작, 폐기, 복원의 기록> 2024.10.22.~ 2025.3.3.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중장	(공간 오감) 아기, 우리, 반가시유상	11.2~11.30. 매주 화·목·토 10:00~11:30 / 14:00~15:30	공간 오감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11.4~11.25. 매주 월 10:00~10:40 / 11:00~11:40	온라인
	문화예술림(병원학교)박물관 문화탐험대 대면 교육	10:00~10:40 / 11:00~11:40	병원학교
	문화예술림(무지엄 토끼)병원학교 관계자 초청 대면 교육	3.13.~12.11. 지정 수요일 14:00~15:30	어린이박물관
중장	특별전 <꾸는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자> 어린이를 위한 감성기대드	11월 중	어린이박물관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심포지엄 [유아/초등 저학년] 어린이박물관 상설전 <우리 교육 '월지'에서 만난 신비로운 동물들'	11.26.(화)~2025.3.3.(월) 11.28.(목)	특별전시실
	초등학교 단제 교과서 문화유산 <모여봐요, 토마윌> <노년층 단제> 박물관 백세 장춘 마당	11.5.~11.26. 매주 화 10:30~11:30 / 13:30~14:30	대강당
	[유아/초등 저학년] 뒤뚱 박물관 놀말기차	11.6~11.20. 매주 수 10:00~11:00 11.2~11.30. 매주 토 일 10:00~17:50	강당, 온라인 어린이박물관
중장	[성인] 큐레이터와의 대화 고교학과 함께하는 고려청자 몸타주 박물관은 내 친구	11. 27.(수) 17:00~17:30 11.5.(화), 11.19.(화)	신라역사관 교육관 체험학습실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	11.6.(수), 11.12.(수)	교육관 체험학습실
	무려무려 문화유산 다하기! <스웬스웨 나비팔찌> 전시 연계 공연·해설이 있는 판소리, 친자적 동몽 서경, 춘향을 찾습니다	11. 3.(수), 11.27.(수)	교육관 대강당
	전시 연계 공연·해설이 있는 판소리, <춘향가> 논대극 '실경가'	상시	어린이박물관 특별전시실
전주	2024 서예인문학 전북에 있는 우리마름 보물창기	11.19.(화) 11.16.(토) 14:00~14:50	특별전시실
	[관람객] 제24회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 그리기 전시 입상작 전시	11.27.(수) 매주 주말	세미나실 상설전시실
	[관람객] 제24회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 그리기 전시 입상작 전시	10.1.(화)~2025.3.2.(일)	해설관 복도
	[유아 단제] 개구쟁이들이 박물관 여행	11.5~11.28. 매주 화·목 10:30~11:30 11.1~11.29. 매주 수 금 10:00~11:30	꿈마루 문화사랑방, 강당
대구	[초등 단제] 교과서 속 문화재 이야기	11.1~11.29. 매주 수 금 10:00~11:30	강당
	[친성인 단제] 엘리아들의 박물관 여행	11.20~11.29. 매주 수~금 10:00~11:30	강당
	[관람객] 문화재 그림다주	11.2~11.30. 매주 토 14:00~16:00	해설관 로비
	1차 온(ON) 가족 신산놀이	11.22(금)~11.25(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해설관 로비
부여	온라인 신산놀이	11.1(금)~11.30.(토)	온라인
	친구랑 신산놀이	11월 중 예약제	온라인
	세계적인 길차, 백제금동대향로	11월 중 예약제	온라인
	온라인 실시간 '세계적인 길차, 백제금동대향로' 유 쿼즈? 관측하GO 생각하GO	11월 중 예약제	온라인
광주	유고 보며 더 재미있는 무령왕릉	1.12.(토)~12.31.(화)	온라인
	교과서에서 나온 문화유산	11월 매주 화·목	유적지 현장
	무령왕릉 연구상자 대면 '무령왕이 되어보자'	4.3.(수)~11.30.(토) 4월~12월	초등학교
	특별전시 연계 강연회 '유라시아의 용 문화'	11.28.(목)	강당
광주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백제 용 사전	11.9.(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용무늬 칼	11.16.(토)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우리 가족 슬기로운 공작생활~용이 사는 신비로운 세상	11.23.(토)	기획 전시실, 세미나실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광주	큐레이터와의 대화 <상상의 동물사전 백제의 용>	11.27.(수)	기획전시실
	모두 같이 즐겨요	11.1.(금)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특별전 연계 교육 <흙으로 만든 세상>	11월 매주 화~금 09:30~11:30	교육전시실, 기획전시실
	특별전 연계 교육 '아기'를 담은 그릇 (2기)	11월 매주 월 14:00~16:00	기획전시실, 공방
전주	특별전 연계 강연	11.29.(금) 14:00~16:00	강당
	제20기 하반기 박물관대학	10.10~11.28. 매주 목 14:00~16:00	강당
	백제시대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11월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전시실
	박물관에서 꿈을 짓다	11월 매주 화~금 10:00~12:00	교육실
전주	2024 하반기 박물관을 지켜라	11월 매주 수·금 09:30~11:30	전시실, 어린이 입진예찬
	조선의 사부 경남 박물관 전문인력 워크숍 석신로드(AR체험)	11.12.(화) 10:00~16:00 상시	강당
	Map of You(특별전 교육 공간)	9.4.(수)~11.3.(일)	특별전시실
	제22기 박물관 연구과정	11.21.(목) 14:00~16:00	소강당
전주	제16기 어린이 토요박물관학교	11.16.(토) 14:00~16:00	세미나실
	큐레이터와의 대화	11.28.(목) 16:30	상설전시실
	박물관에 대상! 박물관에서 그릇을 만나요	11.7~11.28. 매주 목 10:00~11:30	이온학교
	직업역랑 강좌 콜로키움 개최	11.6.(수), 11.20.(수) 14:00	세미나실
김해	안녕, 가요! 혜성왕국편	11.2.(토), 11.16.(토) 10:00~11:30	영상체험실
	가이더! 공작소(장신구편)	11.5~11.26. 매주 수 10:00~11:00	영상체험실
	양에서 태어난 수로왕	11.1.(금) 11.2.(토), 11.8.(금) 10:30~11:30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큐레이터와의 대화	11.27.(수) 16:00~17:00	기획전시실
전주	[학교] 박물관 탐구생활	11월 매주 수·목·금	교육실
	[학교] 보금집 교과상자 대여	11월 중	각급 학교
	[성인]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11.13.(수) 14:00~16:00	강당
	모두의 박물관	11월 중	교육실
춘천	오랑가뎀 박물관	11월 중	각급 학교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군인 단체를 위한 <박물관 저를 만나요>	11.1~11.29. 매주 화·수 금 10:00 / 14:00 11.2.(토) 11.16.(토), 11.30.(토) 9:30	속속배움터, 전시실
	[초등5~6학년] <제17기 어린이박물관학교>	11.2.(토) 11.16.(토), 11.30.(토) 9:30	속속배움터, 전시실
	인문예술 힐링 강좌 <아름다운 나눔-공유와 공존>	11.14.(목) 09:00	담사
나주	큐레이터와 함께 문화유산 산책 <춘바 명품 돌아보기>	11.7.(목), 11.21.(목) 14:00	문화놀이터, 전시실
	[유아] 반짝반짝 금동관 이야기	11월 매주 수 10:00~11:20	체험학습실, 전시실
	[초·중·고생]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11월 매주 화·목·금 10:00~11: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스외계종] 함께 가요, 박물관 나들이 / 박물관에 시 소꿉놀이!	11월 매주 화~금 14:00~15: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야외체험장
익산	문화나눔! 상지여학교와 함께 하는 박물관 역사여행	11월 매주 월~금 자율	전남 상지여 학교
	기척! 문화유산을 지키는 박물관 사람들 교육연구회	11월 매주 토~일 10:30 / 14:00 / 16:00	어린이박물관
	도시와의 함께 떠나는 미술사 시간탐험	11.20.(수)~2025.1.22.(수)	강당
	제3기 익산박물관대학	11.2~11.30. 매주 토	어린이박물관
익산	박물관 속 고고도 익산 여행	11.2~11.30. 매주 토·일 및 공휴일	상설전시실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지미> 연계 프로그램 'Wa 박사의 지미'	10.22.(화)~2025.3.3.(월)	기획전시실
	특별전 <미륵사지 출토 지미> 연계 강연 지미, 고대건축의 의미!	11.7.(목), 12.5.(목)	강당

가을의 끝자락,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기억을 만들고 싶다면

서늘한 바람에 옷깃을 여미게 되는 11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기기 좋은 공연을 선사하는 두 팀이 찾아온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는 깊이 있는 클래식으로 많은 사람과 음악으로 소통하며, 잭킹콩은 일상에 대한 소회와 관찰을 음악으로 풀어낸다. 가을의 끝자락을 따뜻한 기억으로 채우고 싶다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을 찾아가 보자.



국립중앙박물관×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찾아가는 음악회

일시: 2024.11.23.(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단원과 아카데미 단원으로 구성된 실내악 앙상블로 전국을 아우르며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깊이 있는 클래식 프로그램부터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음악까지 넓은 레퍼토리로 많은 사람과 음악으로 소통한다.

국립청주박물관×잭킹콩

일시: 2024.11.30.(토) 오후 3시
장소: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 대강당

잭킹콩은 심강훈(보컬/트럼펫), 이범호(기타), 고서원(건반/트럼펫), 신유동(베이스), 장세훈(드럼)으로 구성된 5인조 밴드다. 현장의 공간감을 강조하는 사운드 디자인, 일상에 대한 소회와 관찰의 정서를 표현하는 음악을 선보인다. 추구하는 음악의 리듬을 표현하다가 우연히 ‘잭 킹 콩’이라는 소리를 찾아내 팀 이름으로 정하게 됐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소리를 만들어내며 대체할 수 없는 사운드를 가진 밴드로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있다.



2024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와의 대화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98회

18:00~18:30

19:00~19:30

11.6.

조각·공예관	조각·공예관	세계문화관	서화관
감은사 사리기 금속공예실(302호) 미술부장 김혜원	도자기 발색 재료 분청사기·백자실 (304·305호) 보존과학부 이해순	중국 고대 청동기 중국실(309호) 세계문화부 오세은	끝없이 펼쳐진 강과 산,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서화실(202-4호) 미술부 이해경

799회

18:00~18:30

19:00~19:30

11.13.

조각·공예관

세계문화관

조각·공예관

선사·고대관

조선시대 불교조각

로마 황제 마르쿠스

청화백자 감상

가야의 해상활동

불교조각실(301호)

아우렐리우스를 만나다

분청사기·백자실

가야실(107호)

교육과 허형욱

그리스·로마실(311호)

(304·305호)

고고역사부 김민철

전시과 백승미

교육과 강경남

800회	18:00~18:30		19:00~19:30	
11.20.	서화관	어린이박물관	중·근세관	선사·고대관
	깨달음과 구제의 비밀 - 감로도의 세계를 보다	+ - ÷ ×(알기 덜기 잇기), 문화유산 속 마음	고려시대의 인쇄문화 고려II실(116호)	삼국시대 진주와 가족 가야실(107호)
	불교회화실(203호)	어린이박물관 내	고고역사부 임혜경	보존과학부 곽홍인
	유물관리부 유경희	어린이박물관과 이영신		

801회

18:00~18:30

19:00~19:30

11.27.

조각·공예관	특별전시실	서화관	서화관
반가사유상과 미륵신앙 불교조각실(301호) 미술부 김지호	특별전 <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청자>(1) 특별전시실(121호) 미술부 서유리	불교 의식과 불화(2) 불교회화실(203호) 미술부 김영희	바다를 그린 그림 서화실(202-4호) 미술부 이해경



webzine.museum.go.kr

표지 이야기

전국 14개 국립박물관은 다채로운 석조문화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이들은 멋진 나무와 숲, 때로는 연못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냅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랜 세월을 이겨낸 석조문화유산들과

계절에 따라 변모하는 자연의 순간들을 야외 전시장에서 만나 보시길 바랍니다.



	11 NOVEMBER	12 DECEMBER	1 JANUARY	2 FEBRUARY	3 MARCH
중앙	<p>고대 그리스·로마실 2023.6.15.~2027.5.30.</p> <p>+ - + ×(알기 덜기 잊기), 문화유산 2023.6.15.~2027.5.30.</p> <p>《달항아리를 만든곳, 금사리》 2024.6.25.~2025.6.22.</p> <p>《푸른 세상을 빛다: 고려 상형철자》 2024.11.26.~2025.3.3.</p> <p>《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2024.11.30.~2025.3.3.</p>				
경주	<p>《수장고에서 찾은 보물(가제)》 2024.12.10.~2025.3.9.</p>				
광주	<p>《영원한 여정, 특별한 동행: 상형토기와 토우장식 토기》 2024.11.11.~2025.3.10.</p>				
전주	<p>《서예, 일상에서 예술로》 2024.6.27.~2025.2.28.</p> <p>《서울구경 가자스라, 길을따라 갈까부터-조선의 베스트셀러 한양기와 춘향전》 2024.10.1.~2025.1.5.</p>				
대구	<p>《향의 문화사: 염원에서 휘향으로》 2024.12.7.~2025.3.2.</p>				
부여	<p>옥외전시장 재개장 2024.08.26. ~</p>				
공주	<p>옥외 석조문화유산 정원 (수호의 정원) 2024.9.10.~</p> <p>《상상의 동물사전-백제의 용》 2024.9.10.~2025.2.9.</p>				
진주	<p>《사기장^{국립}, 흙을 빚어 삶을 이름게》 2024.10.1.~2025.2.23.</p>				
청주	<p>《기록, Map of You》 2024.6.25.~11.3.</p>				
김해	<p>《히타이트》 2024.10.8.~2025.2.2.</p>				
제주	<p>옥외정원 (동자상 조각 정원) 2022.11.11.~</p>				
춘천	<p>《이상향으로의 초대-금강산과 관동팔경》 2023.12.5.~</p> <p>《어느 수집가의 초대》 2024.9.11.~11.24.</p>				

Category	Exhibition Title	Period
특별전	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2023.12.15 ~ 2024.12.31
상설전	국립나주박물관 다시, 열다	2024.10.8 ~ 2025.2.9
상설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2024.9.10 ~ 2024.11.24
특별전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공동기획전 <바다 위의 성, 군산군도>	2024.10.22 ~ 2025.3.3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공강 오감) 여기, 우리, 반가사유상	11.2~11.30. 매주 수·목·토 10:00~11:30 / 14:00~15:30	공강 오감
박물관 전문직 체험교실	11.4~11.25. 매주 월 10:00~10:40 / 11:00~11:40	온라인
문화어울림(병원학교)박물관 문화탐험대원 대면 교육	3.13~12.11. 지정 수요일 14:00~15:30	병원어울림
문화어울림(유지연 토크)병원학교 관계자 초청 대면 교육	11월 중	어린이박물관
문화어울림(박물관 소통)환자 초청 대면 교육	11월 중	어린이박물관
박물가(후문 세상을 빛다. 고쳐 성형하자) 어린이를 위한 그림상기어	11.26(화)~2025.3.3.(월)	특별전시실
2024년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심포지엄	11.28(목)	소강당
[유아]초등·중등·고등 어린이박물관과 상상전	11.5~11.26. 매주 수 10:30~11:30 / 13:30~14:30	어린이박물관 2층 오프닝
연계교육 '일지매가 만난 신비로운 동물들'	11.6~11.20. 매주 수 10:00~11:00	강당, 온라인
[초·중·고등] 어린이박물관과 동물로 여행	11.17~11.28. 매주 목 14:00~16:00	어린이 독본전시실, 수목당
[유아, 초등 저학년] 뽀빠 박물관 놀이발명가(차)	11.2~11.30. 매주 토·일 10:00~17:50	어린이박물관
[성인] 큐레이터와의 대화	11. 27(수) 17:00~17:30	신라역사관
고교학과와 함께하는 고령정자 동타주	11.5(화), 11.19(화)	교육관 체험학습실
박물관 내 친구	11.6(수), 11.12(수)	교육관 체험학습실
제34기 광주박물관대학	11.3(수), 11.27(수)	교육관 대강당
우리의 삶, 문화유산 이야기(소원성취 나비발명가)	상시	어린이박물관
지적 동행 시장, 순창일을 찾아가	11.10(화)	특별전시실
전주연계교육-해미의 일년반소.		
(초·중·고) 난독력 향상기	11.16(목) 14:00~14:50	기획 전시실 내 무대
2024 서예인문학	11.27(수)	세미나실
전북에 있는 우리마을 보물창고	매주 주말	상설전시실
우리 특별한 순간으로의 여행	상시	어린이박물관 2층
[관람객] 제24회 국립대구박물관 어린이 그리기 전시 일상작 전시	2024.10.1.(화)~2025.3.2.(일)	해솔관 복도
[유아 단체] 개구리생각이 박물관 여행	11.5~11.28. 매주 수·목 10:30~11:30	봄마루
[초등 단체] 교과서 속 박물관 이야기	11.1~11.29. 매주 수·금 10:00~11:30	문화사랑방, 강당
[청소년] 교과서 속 박물관 여행	11.20~11.29. 매주 수·금 10:00~11:30	강당
[문화계] 토요작 그림전시	11.2~11.30. 매주 수 14:00~16:00	해솔관 로비
11월 (ON) 기획 전시발표회	11.22(금)~11.25.(월) 기간 중 자율선택 2시간	온라인
온라인으로 즐기는 '도전! 백제금동대향로 박사'	11월 중 11.30~11.30(토)	온라인
추천글 신선행동	1월 중 예약제	온라인
세계적인 걸작, 백제금동대향로	1월 중 예약제	시바루공관정, 전시실
온라인 실시간! 세계적인 걸작, 백제금동대향로	1월 중 예약제	온라인
우 리즈? 관촬하GO생각하GO	1.12(금)~12.31(화)	상설전시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무령왕릉	매주 화·목	온라인
국립에서 나온 문화유산	4.3(수)~11.30(토)	유적지 현장
무령왕릉 고구상자 대어 무령왕이 되어보아요	4월~12월	초등학교
공주특별전시 연계 특별행전 '우리시의 유물 이야기'	11.29(화)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우리 가족 술기로운 공작생활-백제 유물展	11.26(목)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우리 가족 술기로운 공작생활-유물닉 할		
우리 가족 술기로운 공작생활-유물 닐는	11.23.(토)	기획 전시실, 세미나실
신비로운 세상	11.23.(토)	

	교육프로그램(제목)	일시	장소
공공	국립어린이의와 대학 (상성의 동물사전 백제의 용)	11.27(수)	기획전시실
	무도 같이 즐겁게	11.27(수) 오후 2시	기획전시실, 세미나실
	특별전 연계 교육 '후오로 만든 세상'	매주 화~금 09:30-10:30	교육실, 기획전시실
	특별전 연계 교육 '아이가 담은 그릇' (27)	매주 월~목 14:00-16:00	기획전시실, 공방
	특별전 연계 강연	11.29(금) 14:00-16:00	강당
진주	제207 하반기 박물관대학	10.10~11.28, 매주 목 14:00-16:00	강당
	물잔이와 함께 하는 박물관 탐험	매주 화~목 10:30-11:10	교육실, 전시실
	박물관에서 꿈을 찾다	11월 매주 화~금 10:00-12:00	교육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11월 매주 수~금 09:30-11:30	전시실, 어린이 입진예란 체험실
	석신로드(AR체험)	상시	아와정원
창주	Map of You(특별전 교육 공간)	9.4.(수)~11.3.(일)	특별전시실
	제22기 박물관 연구과정	11.21(금) 14:00-16:00	신관대강
	제16기 어린이 토요박물관학교	11.16.(토) 14:00-16:00	세미나실
	국립어린이의와 대학	11.28.(목) 16:30	상설전시실
	[발달장애 대상] 박물관에서 그릇을 만나다	11.7~11.28, 매주 목 10:00-11:30	이온화극
김해	직원연령 강자 롤코스터 개회	11.6.(수), 11.20.(수) 14:00	세미나실
	가나바, 가나. 해상국립관	12.2.(목), 11.16.(토) 10:00-11:30	영상체험실
	아름다운 공예(상설전시)	11.5~11.26, 매주 화~목 10:00-11:00	영상체험실
	알려서 아끼는 주생활	11.17.(일), 11.22.(목), 11.8.(금) 10:30~11:30	어린이박물관 인형극장
	레이더의와 대학	11.27.(수) 16:00-17:00	기획전시실
제주	(학교 박물관과 주생활	11월 매주 수~목	교육실
	(학교) 보글경 교육상자 대여	11월 중	학교
	[상임] 국립제주박물관 아카데미	11.13.(수) 14:00-16:00	강당
	모두의 박물관	11월 중	교육실
	오명가형 박물관	11월 중	각급 학교
충청	어린이, 노인, 장애인, 군인 단체를 위한 '박물관 찾은 만나기'	11.1~11.29, 매주 화~수~금 10:00 / 14:00	술숙배움터, 전시실
	[초등5~6학년] 제17기 어린이박물관학교	11.2.(목), 11.16.(토), 11.30.(토) 9:30	술숙배움터, 전시실
	인문예술 힐링 강좌 '아름다운 나눔-공유와 공존'	11.14.(목) 09:00	담사
	특별전 연계 함께 문화유산 신책 (국립 명품 이야기)	11.7.(목), 11.21.(목) 14:00	문화놀이터, 전시실
	[유아] 반짝이책과 글동과 이야기	11월 매주 수 10:00-11:20	체험학습실, 전시실
니주	[초등중·고] 박물관으로 떠나는 역사여행	11월 매주 화~목 10:00-11: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사회계통] 세계가요, 박물관 나들이 및 박물관에서 소풍!	11월 매주 월~금 14:00-15:30	체험학습실, 전시실, 야외체험장
	[토·일] 상설 학교와 함께 하는 박물관 박물관여행 (가족·학급·단체)는 지는 박물관 사립을 교육연구사	11월 매주 월~금 10:30 / 14:00 / 16:00	전사 상설학교
	제3기 역사박물관대학	20.9.(수)~2025.1.22.(수)	어린이박물관
	다슬기와 함께 떠나는 미래사 시간탐험	11.2~11.30, 매주 수	국립익산박물관 아이미박물관
익산	박물관 속 고도 역사여행	11.2~11.30, 매주 토 일 및 공휴일	국립익산박물관 상설전시실
	특별전 (미라사지 출토 토기) 연계 프로그램 'Wa 박사의 지미'	10.22.(화)~2025.3.3.(일)	국립익산박물관 기획전시실
	특별전 (미라사지 출토 토기) 연계 강연 '지미, 고대건축의 의미'	11.7.(목), 12.5.(목)	국립익산박물관 강당